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별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1985년 11월 5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그는 향년 90세였다. 장례식은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11월 9일에 있었다.

킴볼 대관장의 유족으로는 그의 임종시에 그 곁에 있었던 그의 부인과 3남 1녀와 26명의 손자와 53명의 증손자가 있다.

교회 대관장으로서 킴볼 대관장의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괄목할만한 사상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회원들이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그들을 온전케 하며, 대리 복음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죽은 자를 구원하는 활동에서 큰 진전을 보인 것이었다.

주님의 사업에 대한 간증은 1982년 10월, 제 152 반연차 대회 말씀에서 반영되었다.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더불어 회복이 시작된 지난 일세기 반 동안, 말일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음성을 분명하게 높여 말일의 사업에 대한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속의 권능을 힘있게 그리고 참되게 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간증에 나의 간증을 더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스펜서 올리 킴볼 대관장은 1973년 12월 30일에 (본 교단의) 제12대 대관장이 되어 오랜동안의 지도자 생활의 정점에 이르렀다. 킴볼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열린 십이사도 정원회의 재조직 모임에서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및 계시자인 동시에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다. 그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계승했다. 교회 지도자는 전세계에서 5백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을 관리하였다. 생전에 훌륭한 교사요, 지칠 줄 모르며 일에 몰두한 그는, 같이 일하는 젊은 동료들이 먼저 지칠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계속 일하고 같이 여행하였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인들의 후예인 흑인들에게 거부되었던 신권 성임에 대하여,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합당한 형제들에게 허락된 계시를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킴볼 대관장 부처



받은 것으로 그는 길이 기억될 것이다. 교회 내의 모든 회원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간구함으로써 이 계시는 예상보다 빠른 1978년 6월 9일에 발표되어 교회 내외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그의 지시하에 26개의 성전 건축이 발표되었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되었다.

에너지 절약과 재정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3시간 내로 새로 조정된 교회 모임을 갖는 혁신적인 개념도 지도하에 채택된 것이다.

그는 어머니 올리브 올리와 아버지 앤드류 킴볼 사이에서 1895년 3월 28일에 출생했다. 앤드류 킴볼은 사도, 예언자, 선교사이며 교회의 첫번 대관장단 보좌였던 히버 시 킴볼의 한 아들이었다. 히버 시 킴볼은 183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되었으며 1847년에 브리감 영 대관장 보좌가 되어 운명할 때까지



1975년 한국 대회 때 말하는 킴볼 대관장과 한 인상 장로

그 일에 봉사했다. 킴볼 대관장의 외할아버지인 에드윈 딜워스 올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사업 매니저였으며,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감독이었다. 킴볼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친이 교회의 대관장단에 의하여 질라 벨리에 있는 대처의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에 가서 일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애리조나로 26년 반 동안 그곳을 관리하고 이어서 12년 동안은 인디언 지역 선교부장으로 일했다. 어린 스펜서는 인디언 지역 선교사였던 그의 아버지에게서 인디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디언 백성에 대한 사랑을 키워 오랜 세월 동안 인디언 문제에 대한 지도자를 맡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학생 시절의 킴볼 대관장은 우등생이었으며 운동 선수로서 애리조나 주에 있는 대처의 학교 생활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공립 학교를 마친 후 그는 교회의 질라 아카데미(지금의 동부 애리조나 초급 대학)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4년 동안 그의 학급과 학생회 의장을 맡았다. 선교사 활동에서 돌아온 후 그는 애리조나 대학에 입학했다. 1969년에 그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킴볼 대관장은 처음에는 스위스 독일 선교부에서 부름을 받았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센트럴 스테이크 선교부로 옮겨 갔다. 그는 센트럴 스테이크 선교부에서의 28개월을 거의 다 보냈으며, 미주리 협의회의 의장으로 지냈다. 선교사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그는 세계 각지의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방문했으며, 오랫동안 전세계에서 선교 사업 집행 위원회 회장으로서 봉사했다. 그는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접견했다.

그는 애리조나 주에 있는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의 서기로 오랫동안 일했으며, 후에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로서 12년 동안 봉사했다. 또



1980년 한국 대회 때 킴볼 대관장의 모습(가운데)

5년 반 동안 새로 생겨난 마운트 그래햄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했다. 그 당시에 그는 1938년 던칸의 상류 질라 계곡에서 처참한 홍수 피해가 있는 후 회원들의 피해 복구를 지휘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다.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는 질라 전문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던 카밀라 아이링과 교제하여 1917년 11월에 결혼했다. 카밀라 아이링은 콜로니아 후아레스의 물론 거주 지역에서 태어나서 빌라 혁명 시에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쫓겨난 멕시코 난민이었다.

그녀는 후아레스 주립 아카데미, 브리감 영 대학교, 유타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거치면서 수학했다. 그녀는 에드워드 크리스찬 아이링과 카롤린 롬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킴볼 대관장은 1943년 6월 8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하여 1943년 10월 7일에 성임되었다.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이사회와 관계된 교육 기구의 관련되는 교회 사업에 실제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

발휘했다. 기도와 그의 활동 영역에는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점과, 자매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후에 교회의 복지 봉사회가 된 청소년 선도 위원회의 창설이 포함된다. 그의 저서의 대부분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 그는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교단의 많은 이사회와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했다.

킴볼 대관장이 저술한 책 중에서 「용서가 낳는 기적」, 「기적을 낳는 신앙」, 「잠 못 이루는 교묘한 밤에」는 널리 읽혀지고 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재직 시절에서부터 킴볼 대관장은 인디언 프로그램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그 방면의 선구자로서 25년 동안 인디언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그의 지도하에 인디언들을 위한 많은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현재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활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인디언들을 위한 모든 다른 개발 계획도 후원했다.

열렬한 선교 활동 후원자이며 교회 지도자였던 킴볼 대관장은 교회의 선교사 수를 29,500명에서 50,000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새로운 사도로 부름받음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10월 5, 6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교회 155차 반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핑클리 부대관장은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을 발표했으며,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변경도 발표했다.

벨라드 장로는 1976년에 총관리 역원이 되어 지난 5년 동안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을 역임해 왔다. 그는 교회 선교사과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했으며, 전에는 교과 과정 협의과의 책임자로서 모든 교회 잡지의 편집자로 일했다.

솔트레이크 출신인 벨라드 장로는 유타 대학을 다녔으며, 1974년 캐나다 터런토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여러 기업에 관여했다. 그는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중인 1976년 4월 3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젊은 시절에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감독단 보좌와 고등 평의원을 역임했으며, 감독을 두 번이나 역임하기도 했다.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교회에서의 봉사를 가풍으로 전승한 그의 조상들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의 조부와 외조부가 모두 다 사도로 봉사하였다. 조부인 멜빈

제이 벨라드는 1919년부터 1939년 사망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였으며, 그의 외조부인 하이람 맥 스미스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사도로 봉사하였다.

벨라드 장로와 그의 아내 바바라 보웬 벨라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2남 5녀를 두고 있다.

벨라드 장로의 새로운 부름으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공석이 생기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선임 회원으로 봉사해 온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됨으로써 역시 공석이 생겼다. 파이안스 장로는 남미 남부 지역의 새로운 지역 회장으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주하면서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구아이의 교회 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에이 디어도어 터틀 장로의 후임이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으로는 잭 에이치 고슬린드 2세 장로와 로버트 엘 백맨 장로가 부름받았다. 고슬린드 장로는 교회 북미 북서부 지역 회장으로, 또한 선교사과의 관리 책임자로 봉사해 왔다. 백맨 장로는 1979년 이래 본부 청남 회장으로 봉사해 왔다. *

주일학교 회장단으로 두 보좌가 부름받음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로널드 포울맨 장로

두 명의 총관리 역원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보좌로 지명되었다.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와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가 본부 주일학교 회장인 휴 더블류 피노크 장로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각각 지명되었다. 세 사람 모두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다.

고마쯔 장로와 포울맨 장로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새로운 보좌들은 칠십인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와 로렌 시 던 장로의 뒤를 이은 것이었다. 헤일즈 장로는 1981년 7월 1일부터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고, 던 장로는 1983년 1월부터 제2보좌로 봉사했다.

회장단의 재조직은 지난 4월 헤일즈 장로가 관리 감독으로, 그리고 던 장로가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 회장단으로 부름받음으로써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마쯔 장로는 1975년 4월 4일 십이사도 보조로 지지되어 일본인제로서는 최초의 총관리 역원이 되었다. 그는 1976년 10월 3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되자 그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그는 동경 신전장과 북극동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바 있다.

포울맨 장로는 1979년 10월부터 1981년 7월까지 제1보좌로 봉사한 바 있으므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 다시 돌아온 것이 된다.

그는 1978년 4월 1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 그가 역임한 교회 직책은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감독, 고등 평의원, 세미나리 교사 등이며 네델란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

신전을 “성전”으로 바꿈

1985년 10월 6일 개최한 서울 성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호칭해 온 「신전」을 「성전」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참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지지로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호칭 문제를 연구 발표하도록 지명받은 “최 동헌” 헌당 분과 위원은 그 발표에서 “주님의 집”의 호칭은 “성전”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전제한 후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성경에 “주님의 집”은 대부분의 경우

1)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전(House of God
공동 번역: 하나님의 성전)

또는

여호와와 전(House of the
LORD 공동 번역: 야훼의 전)

주의 성전(Holy Temple

공동번역: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 있고

2) 신약 성서에는 성전(Temple

공동 번역: 성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방신을 숭배하는
집”은

3) 너의 신궁으로(your Temple

공동 번역: 너의 신전에 요엘

3:5 참조) 또는 바벨론 신당
(the Temple of Babylon

공동 번역: 바벨론 신전 에스라
5:14 참조), 여호와와 전, 자기

신들의 당에(House of the
LORD, the house of the gods

공동 번역: 자기 신전에
두었다가, 야훼의 성전에

에스라 1:7 참조)로 기록되어
있고

4) 또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 황제와

“다리우스” 황제는 그의

칙령에서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 신전이라고 표기했다.

(공동 번역: 에스라 6:3, 5, 6, 7,
8 참조)

2. 경전에 의하면 하나님과 신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GOD, God, LORD,
Lord로 표기하고, 신 혹은 신들은
god, gods, lord, lords로 표기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요 10:35에서 신을
이렇게 정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32에는 “모든
신들의 하나님인신 영원하신
하나님(Eternal God of all other
gods)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교리와
성약 132:20에는 ...저들은 끝이
없음으로 신이 될 것이요(they be
gods because they have no end)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는 고린도
전서 8:5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의
많은 신(gods many)과 많은 주
(lords many)를 “전세의 많은 신 즉
전세의 많은 영”들을 뜻한다고
해석했다.(예수 그리스도, 14페이지
참조)

이상의 성구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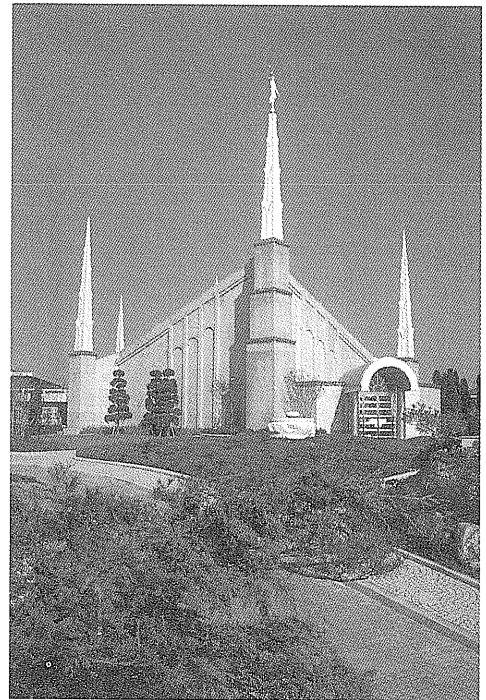
gods였던 전세의 영들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에 따라 훌륭히 준비하면
내세에는 천사가 되지 않고
승영하여 신이 되어, 영의 자녀를
낳고 영원으로부터 영원으로
이르게 된다.

(교리와 성약 132:20, 63 참조)

이로써 성전(House of the God)과
신전(the House of the gods)이
하나님의 집과 사람(신)의
집이라는 점이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을

신전이라고 호칭한 배경은 교리와
성약 한국어판에 하나님의 집을
신전이라고 번역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처음
교리와 성약을 번역하는 시점에서



완공된 서울 성전의 앞모습

일본어 교리와 성약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래
일본어 성경이나 교리와 성약에는
하나님과 신을 모두 가미(神)로
밖에 표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은 히포쓰노 가미(一フの
神)이고 많은 신은 오-꾸노
가미(多くの神々)로 밖에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모두 신전(신당 神殿)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상과 따로 첨부한 많은 관련
성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하나님의
집의 호칭을 신중히 결정하기
바란다.

이상과 같은 최 동헌 형제의
발표를 신중히 검토한 성전 위원회는
만장일치의 거수 지지로 신전을
“성전”으로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후속
조치로 교리와 성약, 물문경 등에
신전으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성전으로 바꾸어 읽기로 했다. 이는
마치 성경에 세례 또는 세례 요한
등으로 인쇄된 부분을 “침례” 또는
“침례 요한” 등으로 읽는 것과 같다.

광주 스테이크 대회



미중나은 자매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는 디오거 장로



미중나은 역원들과 함께 서 있는 디오거 장로(우로부터 여섯번째)

광주 스테이크 1985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에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총관리 역원인 디오거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한 인상 지역 대표와 약 6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였다. 토요일 5시에는 신권 역원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이 있었으며, 신권회에서 디오거 장로는 바벨론과 시온의 한계를 정하시고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의 생활이 늘 시온에서의 생활이 되기를 강조하였으며, 7시부터 열린 토요일 총회에서는 “주님의 속죄와 그의 공의와 자비의 원리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최 정주 스테이크 부장과 장 용택 여수 와드 감독, 농성 와드의 박 봉덕 자매가 말씀하였고 디오거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일요일 일반 총회는 교리와 성약 68편 28절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를 주제로 최 송민 총장 와드 감독, 조 용태 목포 와드 감독, 이 영지 자매, 김 제안 부장, 박 하천 부장의 말씀과 디오거 장로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모임을 마쳤다. 이날 디오거 장로는 12가지 의로운 생활의 지침을 말씀하였다. 참석한 구도자 중 한 사람은 “이 교회의 가르침이 오늘날 세상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다”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이날 디오거 장로는 대회 기간 중에 청중들의 예의바르고 질서있는 모습과 합창단의 합창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회를 통해 윤 현철(총장) 형제 외 2명의 형제가 장로로 성임되었다. *

군산 지부 예배당의 모습

과천 지부 복음 선교 활동

수준 높은 행정 도시 과천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 전도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장이나 카바레 등을 신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구획 정리가 잘된 전원 도시이다.

11월 3일 첫 예배를 본 과천 지부는 상주 고등평의원인 주 덕영 형제(전화 503-0130)와 김 홍배 지부장(전화 503-0418) 그리고 복음 선교사(전화 503-3971)들이 합심하여 복음 전도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과천 지부 회원들은 이 지역에 살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에 적은 전화 번호로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군산 지부 예배당 헌납식 거행

군산 지부는 8월 3일 군산 지부가 조직된 지 15년만에 표준 건물인 예배당 헌납식을 가졌다.

하퍼 선교부장을 비롯하여 전주 지방 부장단, 박 병규 광주 신학 연구원장 그리고 지방부의 많은 역원과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모임을 가졌다.

군산시 서 흥남동 831-1번지에 위치한 군산 지부는 대지 1631㎡(약 493평)에 건평 442㎡(약 133평)의 현대식 건물이다.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대회

1985년 9월 14, 15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 85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총관리 역원인 디오거 장로가 감리 감리하는 가운데 열렸다.

디오거 장로는 서울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성도들이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했다.

디오거 장로는 또한 “성전 사업은 사랑의 사업이며 우리가 잘 준비되면 성전에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다.

신권 지도자 모임을 갖는 동안 다른 방에서는 디오거 자매를 비롯해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청녀 회장단, 초등학교 회장단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단의 자매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 특별 모임이 진행되었다.

손 승은 부장은 “속죄와 자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꾸준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일반 총회에 참석한 인원 및 구도자 수는 535명이었다. *

충남 대학교 LDS 활동

충남 대학교에서 말일성도로 구성된 L.D.S. 씨클에서는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선교사 훈련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8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오전 8시부터 귀환 선교사 간증, 역할 담당극 6단계, 노방 전도, 가가호호 그리고 5분 말씀 등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참여한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

신화 와드—이 상균 형제, 홍 성실 자매

유천 와드—이 상길 형제, 권 혁필 형제, 김 혜경 자매

삼성 와드—임 성빈 형제, 이 창희 자매, 서 정란 자매 *

정주 지부 우정 모임

8월 15일 정주 지부에서는 전주, 동전주 청남 청녀 60여명이 함께 모여 우정 모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 모임은 제1부 영적인 말씀 및 퀴즈 대회, 제2부는 게임, 패션쇼, 가요제, 장기 자랑, 포크 댄스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퀴즈 대회에서 신앙 개조를 완전히 암기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으며 형제들의 무술 시범은 눈길을 모았는데 국술원, 쿡후, 태권도, 유도, 검도 등으로 많은 형제들이 초단 이상의 실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자매들의 고전 무용과 에어로빅 그리고 맛있는 점심식사 솜씨로 회원들의 우정을 더했다.

길 순권 지부장은 전주 지방부에서 정주 지부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자주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정 모임을 마치고 함께 한 회원들



강릉 지부와 동해 지부 합동 체육 대회

10월 9일 한글날에 강릉 지부와 동해 지부 회원들은 동해시에 있는 창호국민학교에서 우정을 다지는 체육 행사를 가졌다.

니파이 팀, 레이맨 팀, 그리고 모로나이 팀으로 나누어 배구, 족구, 발야구 그리고 각종 릴레이 등으로

실력을 겨루었고, 끝으로 강릉 지부와 동해 지부 대항 텃치볼 경기로 체육 대회를 마쳤다.

강릉 지부는 최근에 지부장으로 박 용엽 형제가 임명되어 수고하고 있다. *

강릉 지부와 동해 지부 회원들



주안 와드 예배당 헌납식 (인천 스테이크)



헌당식에서 테이블을 끊는 모습(좌로부터 허 채 부장, 최 육환 장로, 서 인석 자매, 정 지현 형제, 황 중원 형제)

1985년 9월 14일 오후 6시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에서는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새로운 예배당을 헌납하는 모임을 가졌다.

지역 대표인 최 육환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진행된 헌납식에서 허 채 스테이크 부장이 헌납 기도를 드렸다.

이 건물은 '84년 9월 25일에 착공하여 1년 만에 완공하였는데 대지는 175평이며 건평은 134평이다.

허부장은 헌납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히 인천에서는 최초의 표준 건물인 주안 와드 예배당을 회원들이 아끼고 사랑하여서 모범 건물이 되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최 육환 장로는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을 치하하였으며 허 채 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제5회 너·나 그리고 우리 (대구 스테이크 중리 와드)

중리 와드 청소년들의 연례 축제인 청남·청녀 재능 발표회가 9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권 찬태 감독의 감리하에 새로운 예배당 활동실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헌당식을 마친 후 첫번째 갖는 모임이어서 발표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밝은 표정이었다.

합창, 판토마임, 피아노 독주, 에어로빅 댄스, 독창, 중창, 상무, 수필 낭송, 바이올린 독주, 민속 의상 발표 그리고 연극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합창한 “보리밭”과 “나의 어머니”는 많은 연습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너 나 그리고 우리”의 주제가 만들어졌고 판토마임 대사도 창작 작품이었다.

권 찬태 감독은 영적인 말씀 순서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이 가혜 자매 모범 학생으로 선발됨(부산, 광안 와드)

지난 6월 9일 부산 MBC-TV “오륙도 출발” 시간에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소속의 이 가혜 자매가 모범 학생으로 소개되었다.

이 자매는 경남 여고 2학년으로 본교 학생회장이며 부산 시내 전체 고등학교에서 모범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자매와 온 가족이 모두 소개되었으며 간단하게 가정 생활도 방영되었다.

반장이기도 한 이 자매 가족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며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집안이다.

이 가혜 자매는 이 복일 형제와 강정희 자매의 1남 2녀 중 장녀이다. *



이 가혜 자매 가족(뒷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소년 대회 및 청년 대회 (부산 스테이크)

소년 대회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85 소년 대회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청성산 계곡에서 부산과 울산의 청남 청년들이 참여하여 가졌다.

대회 주제는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함이라”(모 2:17)이었다.

청소년들의 영적인 발전과 지도력을 키우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107명의 청남청녀와 29명의 고문 및 역원들이 9개 대대로 편성되었다.

유난히 더웠던 날씨는 참여한 회원들을 힘들게 하였지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서로 협동하는 마음은 인내심과 즐거움을 갖도록 해 주었다.

청년 대회

소년 대회를 마치고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 스테이크 독신 성인들은 밀양의 백연산에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60 여 명의 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첫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둘째, 인내심과 순종심 그리고 셋째로는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협회 체육 대회 (전주 지방부)

전주 지방부 초등협회 체육대회가 6월 29일 전주 지방부 활동실에서 있었다.

초등협회 어린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즐겁게 뛰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진행은 과자 따먹기, 다리 묶고 뛰기, 기마전, 기차폭폭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상호부조회에서는 체육 대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다과를 준비하였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짧은 경기였지만 모두들 흐뭇한 표정이었다. *

가족 음악 경연 대회

1985년 7월 20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가정을 강화하고 가정 안에서의 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테이크 활동실에서 가족 음악 경연 대회를 가졌다. 충장 ward 외 4개 ward와 2개 지부에서 10가족이 경연을 벌였는데, 순천 지부 조 중현 지부장의 가족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천국”으로 1등, 농성 ward 김 용진 형제 가족이 선구자 외 1곡으로 2등, 3등은 금성 지부장 가족이 차지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과 구도자들은 음악을 통한 가족의 화합된 모습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

이 경은 자매 퀸스 교향악단 독주회 입선



이 경은 자매는 지역 대표인 이 호남 장로의 둘째 딸이다.

다섯 명의 어린 음악가들이 9월 29일 일요일에 있는 제2회 연례 퀸스 교향악단 독주자 오디션 합격자 연주회에서 마리아 홀을 감미로운 고전 음악으로 수놓았다. 모두가 십대인 연주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솜씨를 보였다.

17세 된 이 경은 자매는 은 메달을 수상했다. 이 자매는 확신에 찬 놀라운 실력으로 모차르트 소나타 D 장조를 연주하였다. 이 자매의 피아노 솜씨는 부드럽로우면서도 정확했으며, 연주된 곡은 청중을 매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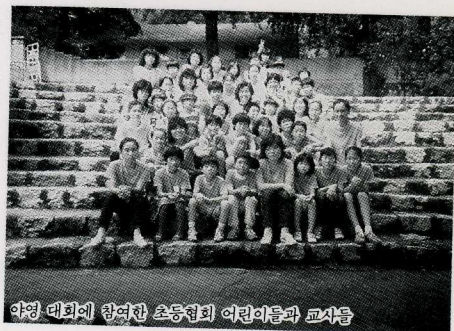
이 자매는 1982년도에 고국에서 열린 중등부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었다. 1984년에 맨하탄 음악 학교로부터 엘바 반 겔더 추모 장학금을 받고 현재까지 맨하탄 음악 학교 준비반에서 솔로몬 미코우스키 박사의 사사를 받아 왔다. *

성도의 빛/1985년 12월호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창립 기념 야영 대회

지난 8월 14, 15일 양일간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에서는 삼청동에 위치한 혜화/삼청 ward에서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어린이 36명과 15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 야영 대회를 가졌다.

초등학교 창립 107회 기념 행사로 가진 이번 대회에서는 소년단 선수로 시작하여 체육 활동, 경전 퀴즈, 노래 퀴즈, 그리고 연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어린이들에게 자립심을 갖게 하고



사랑을 키워 주며 심신을 단련하는 모임이었다. *

대구 스테이크 중리 ward 헌납식

1985년 9월 7일 오후 4시 대구 스테이크 중리 ward에서는 박 원결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신축 예배당 헌납식을 가졌다.

중리 ward 예배당은 1979년 7월에 대지를 구입하여 1984년 9월 30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85년 8월 31일 입주하였다.

대지 230평에 건평 150평의 붉은 벽돌 이층으로 된 이 건물은 중리 ward 회원들이 거의 10 여 년을 기다려 온 소망의 결실이다.

이 모임에서 권 영준 형제는

바이올린 독주를 하였으며 스테이크 어머니 합창단은 찬송가를 불러 주었다.

박 원결 부장은 헌납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질서있는 기도의 집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져 갈망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집이 되도록” 간구했다.

중리 ward의 주소는 대구시 서구 평리동 1542-11이며 전화는 553-6192이다. *

헌당식을 마치고 함께 모인 회원들

